

研究論文

# “기질(氣質)은 선(善)한가”

아버지 원교의 양명학과 아들 신재의 주자학

한형조

한국학중앙연구원 인문학부 교수, 철학 전공

hjokhan@aks.ac.kr

- I. 강화학 속의 양명학과 주자학에 대하여
- II. 원교의 기질(氣質)론, 신재의 객기(客氣)론
- III. 조선유학의 유형학과 양명학

이 논문은 2006년도 정부재원(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2006-321-A00398).

논문은 다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셋은 서로 연관되어 있다.

I. 적극 언급되지 않았던, 강화학 속에 뚜렷한 주자학을 탐색한다. 대상은 원교를 둘러싼 스승 하곡, 형 항재, 그리고 아들 신재를 중심으로 한다.

II. 원교 이광사의 ‘기질(氣質)’론을 그 자신의 성격과 삶의 태도를 통해 읽어본다. 그리고 아들 신재의 객기(客氣)론을 대비해보았다. 원교는 기질(氣質)의 자연을 믿고 신재는 거친 객기의 발호를 우려한다. 이 차이가 둘을 각각 주자학과 양명학으로 경도시켰는지도 모른다.

III. 이기(理氣)의 상관 프레임으로 조선의 유학을 유형화할 때, 원교의 위상이 화답이 택한 유기(唯氣)와 가까워 보인다. 이 유형화와 안배는 그럴듯한가, 문제는 없을かを 묻는다.\*

## I. 강화학 속의 양명학과 주자학에 대하여

### 1. 두 가지 논점

조선 양명학은 주자학과 긴밀한 대화 혹은 ‘통섭’ 속에 있다. 그런데 그동안은 ‘강화학’을 오로지 주자학과 ‘차이’ 혹은 ‘대치’에서 강조해왔던 듯하다. 물론 여기 이유가 있다. ① 위당 정인보의 시대에는 “조선을 식민지로 망친 것이 주자학”이라는 통한이 있었고, ② 지금은 학계의 ‘주자학 일색’에 양명학의 비주류 혹은 소외의식이 배타적 스탠스를 취하게 하지 않았나 싶다.

이 발제는 그런 정황과 주의(主意)에 매이지 않고 강화학의 면모를 평심(平心)하게 바라보려는 한 시도이다.

정양완 교수도 일찍이 『강화학과의 문학과 사상(2)』의 ‘서문’에서 기존의 몇몇 통념을 반성 혹은 비판한 바 있다. 두 가지만 적어본다.

---

\* 이 글은 강학을 통해 주자학과 양명학 사이를 조명해본 것이다. 기본 자료로 정양완, 『강화학과의 문학과 사상(2)』(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5)과 심경호, 『강화학과의 문학과 사상(3)』(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5)을 썼다. 두 책은 필사로 된 자료들의 상당량을 번역해주어 강화학의 세부에 접근하는 데 결정적 도움을 주었다. 이 자리를 빌려 두 교수님께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 반성 1) 강화학을 실학으로 규정해도 괜찮은가?

정양완 교수는 강화학에 실학(實學)의 이름을 붙이고, 그것을 또 ‘근대’의 맹아로 규정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했다. 과학과 기술, 그리고 사회개혁과 국가경영의 ‘외면적’ 성취는 강화학의 본질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외래의 사조 연구모델에 알게 모르게 미혹되어 공리주의적·목적론적인 사상이념을 실학이라 규정하고, 조선후기의 자본주의의 맹아론을 분석하기 위한 이론들로 실학을 연구하는 풍조가 일세를 만연한 까닭에 강화학의 진정한 의미를 되묻는 이가 없게 되었다.<sup>1)</sup>

정양완 교수는 강화학의 중심이 ‘순수동기론’이며 이것은 언필칭 실학의 이름표인 ‘공리주의’와는 전혀 다르다고 극변했다.

기실 원교가 쓴 ‘실학’이라는 말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실학과는 십만팔천 리였다. 그것은 하곡 정제두의 학문을 두고 칭한 바 있듯이 “專於內 實於己”의 도저한 내면의 학을 가리켰다.<sup>2)</sup>

## 반성 2) 강화학은 양명학인가?

정양완 교수는 강화학의 실상을 모르고, “강화학을 양명학으로만 규정하는 안이한 발상을 벗어나지 못한 경우가 없지 않은 듯하다”고 주의를 주었다. 그는 이어 정인보 선생의 『양명학연론』의 서술도 원자료의 실제 분석이 없이 “그대로 따와서는 안 된다”고까지 말한다.

요점은 강화학은 양명학으로 일률적으로 규정할 수 없다는 말이다. 정양완 교수는 대안의 이름을 제시하지는 않고, 다만 “초기 강화학이 양명학에 대한 비판적 수용”이라고 최소한으로 언급해두었다.

강화학이 순전한 양명학이 아니었다면, 그 정체성을 어떻게 파악하고 규정할 것이냐, 내 발제는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다음은 강화학의 주요 인물 가운데 ‘주자학에 기운’ 세 사람의 성향을

1) 정양완, 『강화학파의 문학과 사상(2)』(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5), 책머리에.

2) 원교는 1757년 귀양지에서 막내며느리(하곡 정제두의 손녀였다)에게 보내는 글에서, 그동안 하곡의 德義를 흠모다가 “1731년 봄에 비로소 강화에 들어가 선생을 뵈고, ‘實學’의 요체(實學之要)를 들었다”고 적었다. 이 實學의 규정은 회고적·역사적 작명인 통념의 實學보다 그 용어의 저작권자인 주자학의 그것에 가깝다.

점검해보고자 한다.

## 2. 강화학 안의 주자학적 경향들

### 1) 하곡 정제두가 이락적파(伊洛的派)라니

하곡 정제두는 조선 양명학의 태두이다. 그럼 그는 주자학과 완전히 단절했는가. 정양완 교수는 하곡 “정제두가 이기론(理氣論)의 형태로 양명학적 심학의 사유를 진행시켰다”고 적었다. 주지하다시피 왕양명은 이 ‘형이상학적’, ‘이론적’ 프레임으로 자신의 사유를 전파하지 않았다. 이 사태는 하곡의 사유가 갖는 양명학과와의 거리와 주자학과와의 근접성을 함축하고 있다고 말해도 좋을까. 눈썹을 찌푸릴 일이 아니다. 나는 이곳이 오히려 하곡의 독창을 보여주고, 혹은 하곡학의 정위된 지점을 밝히준다고 생각한다. 양명학의 정신에 의하면 양명의 발자취를 따르거나 모방한다면 ‘그 정의에 의해’ 그는 양명학자가 아닌 곳으로 내쳐질지 모른다. 한 걸음 더 나아가보자.

제자인 원교 이광사는 하곡을 기려 이렇게 말했다. “밖으로 노니는 마음 다잡고, 지엽을 영원히 쳐버렸다.” 그러면서도 하곡이 “이락적파(伊洛的派), 즉 정이천과 주자의 뚜렷한 유파”라고 썼다. 다름 아닌 원교가 이렇게 정위했다는 것이 놀랍지 않은가.

하곡은 물론 “별것 아닌 논의를 펼치거나 꼬투리를 붙잡아 책권이나 묶고 있는 지엽적 주석” 작업을 한 사람이 아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남명 조식의 것과 닮았다. 즉, 원교에 의하면 하곡이 그렇게 한 이유는 “송대 주자학자들의 논의가 ‘이미’ 충분히 갖추어졌기 때문”이다.

성현이 주신 가르침, 송대에 더욱 밝아져, 빠짐이 없었으니, 나는 오직 정성스레 행할 뿐. 비유하자면 접시에 온갖 음식 다 차려졌으니 집어먹고 배부르면 그만이니 번거롭게 고이고 배어낼 게 뭐 있느냐.<sup>3)</sup>

원교의 이 제문은 “하곡이 양명학자라기보다 주자학자”임을 알리고

3) 정양완, 앞의 책, 52쪽. “先聖垂訓, 逮宋益明, 罔有闕漏, 我但勤行, 譬如籩豆, 百味咸列, 取啗自飽, 何煩臠割.”(『霞谷集』 권11, 祭文, 李匡明, 한국문집총간, 160-296d). 이 제문은 원교가 대신 지어준 것이라 한다. 『하곡집』에는 “포은 목은의 뒤를 이었고, 伊洛의 派”(惟靈, 圃牧遺昆, 伊洛의 派)라는 두 구절을 刪去했다. 아무래도 걸렸던 듯하다.

있는 듯하다. 안다. 그 시절, 양명학은 금기였고, 집안이 풍비박산 난 마당에 이학(異學)의 혐의를 두려워했음도 …… 그러나 나는 이 ‘변명’에 동의하지 않는다. ① 기록들은 ‘집안’에 필사의 형태로 남아 있고, 또 항재 이광신과 원교 사이처럼, 그리고 그 아랫대 신재 이영익과 초원 이충익의 사이처럼 “나는 양명학을 선택한다”고 말하는 데 거리낌이 없었다. ② 원교를 위시해 양명학의 종지는 실심(實心)이다. 안과 밖이 둘이 아닌 것, 아는 것과 행하는 것 사이에 간격이 없는 것, 정양완 교수의 말을 빌리면 부자기(不自欺), 즉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것이 양명학의 기본 종지이다. 만일 혐의가 두려워 내왕(內王)이면서 외주(外朱)를 표방했다면, 그 양명학은 별로 볼 만한 것이 없지 않겠는가.

항재 이광신의 견해도 들어보자. 『하곡집』 권11의 “문언어록”에는 항재가 하곡학을 논하는 글이 전한다.

그에 의하면 하곡은 “처음 주자의 『대전』을 상세히 궁구했는데 의리가 정밀하고 자세한 것”을 취했다고 한다. “다만 격물궁리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려웠다”는 것, 그리고 “염계와 명도가 도체(道體)에 있어 혼합(渾合)과 간이(簡易)한 바를 보고 혼연히 느끼는 바 있었다.”<sup>4)</sup>

하곡은 나중에, “양명의 글을 얻어 읽고 치양지(致良知)와 지행합일(知行合一)과 만난다. 그 설이 염계와 명도가 밝히지 못한 자리라고 판단해서 치지(致知)에 전심했다”고 적었다. 이곳이 하곡이 양명학을 받아들인 지점이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이 선택은 “짐짓 고정(考亭, 주자)의 학문과 다르기를 구하려고 한 때문이 아니었다”고 짚어두는 것을 잊지 않았다. 위의 인용문에서 보듯,

고정(考亭)을 높이로 믿는 데서도 또한 일찍이 독실하지 않음이 없었고 그 밖에 문의(文議)가 명확하고 정당한 곳은 역시 한 글자도 움직이지 않았던 것이다.

4) “李匡臣曰先生初年，從事於考亭之學。凡大全語類義理精微，蠶絲牛毛，靡不貫穿研索，顧其格致之訓，卽物窮理之說，終覺有抵牾未入者，求之濂溪明道說，則格致訓義，雖亦未有異於考亭，而道體工夫之實處則渾全簡易，未見有離析，至如心卽道道卽心，心外無道道外無心之說，尤有默契而妙合焉。又復參之諸經，凡明誠精一一貫之妙，鑿鑿然相符。”(『霞谷集』 권11, 門人語錄, 한국문집총간, 160-298c). 여기서 渾合이라 한 것은 知와 行, 性과 情을 가르켜 本然과 氣質을 구분하고, 理와 氣를 갈라보는 주자학에 대해서 한 말일 것이고, 易簡이란 공부의 세세한 절목을 늘어놓지 않고, 본심의 자각 하나에 집중하는 것으로 나중 자신의 致良知의 방법과 같은 궤라고 생각한 듯하다.

그는 제자들을 가르치거나 학인들과 강마할 때, 근기와 성향에 따라 이 둘을 적절히 선택해서 가르쳤다고 한다.

선생의 문하(門下)에 찾아든 이가 만약에 (주자의) 장구(章句)와 집주(集註)를 배우려고 하면 역시 그에게는 장구와 집주를 가르쳤으며, 반드시 왕양명의 학설로 유인(誘引)하지는 않았던 것이니, 대체로 그의 독실한 용공(用功)을 말한다면 이것과 저것이 서로 해치지 아니하고 같은 곳으로 돌아가서 일치(一致)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sup>5)</sup>

항재의 관찰에 의하면 하곡은 “세속의 풍조가 두 학문의 실재를 잘 모르고, 일방적으로 편을 먹고, 상대방을 배척하는 것을 큰 병폐로 알았다”고 한다.

실제 ① 주자학의 정통론은 양명학을 배척하고, 이에 물든 강화학의 인물들을 경계해 마지않았다. 명재 윤증, 남계 박세채 등이 그러했다. 한편 ② 이학(異學)의 이름이 두려운 사람들은 강화학의 인물들이 “양명학을 하지 않았다”고 감추고 변명하고자 한다. 이 두 태도 모두 적절하지 않은 것이었다. 항재는 정면에서, “학술 그 자체의 가치에 입각해서” 두 학문의 장단점을 형량하고, 접합하기를 권했다.

세상에서 도청(塗聽), 도설(道說)하는 데는 고정(考亭)이나 양명(陽明)이 어떤 도(道)와 어떤 학문을 하는지도 모르고서, 유교와 불교를 빙탄(氷炭)이 같지 않다고 보아, 양명을 배척하여 이단(異端)이라 하고, 선생을 헐뜯어 이학자(異學者)라고 하는 것은 더불어 논할 수 없은 물론이었다. 그리하여 선배나 어른들 중에 명재(明齋), 남계(南溪), 명곡(明谷), 성재(誠齋)와 같은 여러 선생도 대체로 일찍이 이를 걱정하였는데, 역시 생각해보건대 양명학에 빠질까를 두려워하여 생각하는 것이 깊지 못하였고, 그 걱정하는 것이 지나쳤던 것이다. 문인이나 후학에 이르러서도 전 사람의 의견(舊見)을 이어받음을 면치 못하였으니, 양명학이 이단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참되게 알지 못하면서, 반드시 미봉하고 덮어주며 감싸주려고 하였다. 후자가 말하기를, ‘선생이 언제 일찍이 양명학을 했던가?’라고 하였는데, 이것도 또한 잘못된 것이었다.<sup>6)</sup>

5) “及門者如欲以章句集註學之，則亦授之以章句集註，不必以陽明說引誘。蓋以其篤實用工則以彼此不害爲同歸一致故也。然而若有請問陽明說者，則亦必隨其所叩。竭兩端而盡，此先生爲學之始終主意也。”(같은 곳)

6) “世之塗聽道說，不知考亭陽明之爲何道何學，視若儒釋氷炭之不同，斥陽明爲異端。譏先生爲異學者，固不可與議，而先輩長者如明齋，南溪，明谷，誠齋諸先生蓋嘗憂之，而亦恐於陽

항재의 기록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하곡의 학문은 ① 주자의 정밀함을 버리지 않았고, ② 염계와 명도의 혼합(渾合), 이간(易簡)에 깊이 공감했으며, ③ 아울러 양명의 치량지와 지행합일에 몰두했다.

## 2) 항재 이광신의 혈전불이(血戰不已): “終見晦翁, 純然無疵, 王之爲說, 過高而捷”

원교의 사촌형인 항재 이광신 자신, 하곡에게 나아가 배웠고, 그리하여 당대의 속류들과 달리 양명학을 적극 공부했다. 그는 『양명집』을 읽은 후 이렇게 감탄했다. “회옹(晦翁, 주자)같이 순연치는 않지만 (양명이) 도를 보는 것이 정밀(精密)하고 긴약(緊約)하여 요령 또한 취함직하니, 어찌서 이류(異類)라고 배척하는 지경에 이르렀는가.”<sup>7)</sup> 항재는 주자학적 전통하에서 자랐고, 양명이 제기한 문제와 방법을 자신의 공부 위에서 절기(切己) 체험해나갔다. 그는 이 학문의 ‘전투’를 거쳐 결국 주자학으로 귀착했다.

아우 원교의 술회에 의하면 항재의 집은 형제 지우들의 사랑방 노릇을 했던 것 같다. 집안에 화가 닥치자 항재는 “두문불출, 동산에 정자를 지어 세상을 내려다보았다.” 집이 마침 저자거리에 있었고, 동산이 높은 지대에 있었던 모양이다. 뜰에는 온갖 화초를 심고, 집안사람을 불러 모아 달 밝은 밤에 술을 같이 마시며 흥을 나누었다고 한다. 그의 책상 위에는 “주자의 의리(義理)에 관한 책들이 펼쳐져 있었다(床有閩洛 義理之書).” 이 모임은 막내 광민의 병과 자살로 “이 빠진 노리개처럼” 되고 말았다.

항재는 병약했지만 “젊은 나이에 과거 공부를 했는데, 시가 굳건했고, 명성이 자자했다”고 한다. 그러다 “중년에 접어들면서 (경서와 사자서에) 뜻이 더욱 독실해져 과거량은 끊어버리고, 스승에게도 의뢰치 않고, 깊숙이 들어앉아 의리(義理)를 연구했다”고 한다.<sup>8)</sup>

明考之不深, 而其憂之也過矣. 至於門人後學不免承沿舊見, 未能真知陽明之不爲異端, 而必欲網縫掩護, 或以爲先生何嘗爲陽明學云爾, 則是亦誣也.”(같은 곳)

7) 정양완, 앞의 책, 76쪽. “歸取王文成集讀之曰, 非若晦翁之醇然, 見道精約, 要亦可取, 何至斥以異類, 爲作擬朱王問答以辨之.”(『圓嶠集選』 권9, 行狀, “五兄恒齋先生行狀”, 한국 문집총간, 221-547c)

8) 같은 곳. “以是自少, 愛讀經書, 及四子言, 迥然興起, 漸向中年, 其志彌篤, 謝絕科舉, 不藉

원고는 그의 형의 학문을 이렇게 회고했다.

처음에는 주희암(주자) 사모하여 격물치지(格物致知) 천명터니 / 나중엔 정하곡의 양명학설 들은 뒤론 마음 쓰길 내수(內修)에만 / 지행은 마땅히 합일(合一)해야 한다고 [...] / (그의 공부는) 남들의 년출지고 지리합과는 델 것이 아니었네.<sup>9)</sup>

항재는 그렇게 하곡의 양명학을 “높이 받들고 사모하며” 여러 해를 강구(講究)했다. 그러다가 다시금 의문에 부딪힌다.

마침내 의심이 생겨, 다시금 양명과 주자의 두 글을 양손에 받들고 / 하나하나 서로 참조하여 / 장단점을 비교하되 / 처음에는 흑백이 어수선하여 정연치 못하더니 / 이러기를 여러 해 / 피투성이로 싸우기 그치지 않았다네.<sup>10)</sup>

그는 이 피투성이의 전투를 통해 다시 주자로 돌아왔다고 한다.

마침내는 회암이 / 순연하여 흠 없음을 알게 되었고 / 양명의 학설은 / 지나치게 높고 첩경이라 / 그 책을 밀쳐두고 / 주자에 전념했네.<sup>11)</sup>

그는 “방에 오두마니 앉아 / 경(敬)으로 자지(自持)했다.” 원고는 항재의 단정하고 엄숙한 용모가 “뻗뻗한 고목처럼 편고(偏枯)한 것이 아니라” 일상적 상황에서의 성취를 통해 중화(中和)를 기약한 것이라고 적었다. 원고는 덧붙인다. 항재의 길은 “총령(葱嶺)의 상달(上達)도 아니고 / 지리한 주석과 교열의 지엽말단의 길도 아니었다.”<sup>12)</sup>

원고가 묘사한 항재의 길은 주자학의 전형이라 할 만하다. 총령의 상달은 불교, 특히 선가의 길을 가리킨 것이지만 여기 양명학의 길도 아울러 빚댄 듯하고, 지리한 주석과 교열은 훈고와 고증의 학문을 가리킨다.

---

于師，深居研究，義利毫釐，有時拚冊，閉眼深思。”

9) 정양완, 앞의 책, 92쪽. “始慕晦菴，闡明格致，後聞霞谷，新建之說，用心於內，當合行知，不比夫人，蔓延支離，初學味要，易至外馳。”

10) 같은 곳. “兄契於心，求之數歲，尊崇信慕，終乃生疑，復將王朱，二書在几，一一參互，比較得失，始時黑白，棼然參差，如是累歲，血戰不已。”

11) 같은 곳. “終見晦翁，純然無疵，王之爲說，過高而捷，擔閣其書，專意考亭。”

12) 정양완, 앞의 책, 94쪽. “塊處一室，以敬自持，端拱長跪，正冠垂綬，齊莊之容，顯獨一施，方其齊莊，匪枯木如，乾乾有事，輒見中和，欲以此心，直契宣尼，培達根源，以作萬事，惟此入頭，貴先真知，不如葱嶺，直欲上達，又不似饒，胡層生葉枝，專向箋註，校讎至死。”



### 3) 신재 이영익의 최종 귀착: “晦菴爲學之本, 無以易之”

지금 보았듯이 항재의 학문은 순전한 ‘양명학’이라 할 수 없고, 어느 편이나 하면 역시 주자학에 가깝다. 그렇다고 온전히 ‘주자학’이라 할 수는 없으니 양명학으로부터 배운 것이 적지 않은 것이다. 항재의 학문에 그럼 누구의 이름표를 붙여야 할까.

심경호 교수는 “문호를 세우지 않고, 불안스런 전율을 계속하는 일, 그것이 강화학문의 태도였다”<sup>13)</sup>고 말한다. 물론 이 설정은 항재를 두고 한 말이 아니라 강화학의 전반적 성격을 두고 한 말이다. 심 교수는 강화학이 주자학이나 양명학의 선택지로 일반화되지 않으며, 그 정신은 자신의 생명력을 내보이고자 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강화학은) 주자학이라든가, 양명학이라든가 하는 문호를 세우지 않고, 인간 존재의 참모습을 인식하고자 한 결과였다.”<sup>14)</sup>

나는 비로소 왜 심 교수가 책의 첫머리를 떨고 있는 나침반으로 시작했는지를 알 수 있었다. 살아 있는 것은 다 떨고 있다. 그 떨림이 멈추고 어딘가에 낙착될 때, 그는 생명력을 잃는다는 그런 취지를 심 교수는 민영규 교수의 『예루살렘 입성기』를 인용하며 시작한 것이다.

원교의 둘째아들 신재 이영익도 바로 이 경향, 이름표를 붙이고 편을 나누는 오래된 학자적 풍습을 경고하고 나섰다. 그는 6촌 아우인 초원 이충익과 주로 학문적 대화를 했는데, 초원이 불교와 양명학에 경도하면서 “나는 어디, 형은 어디”라고 레테르를 붙이고자 했던 모양이다.

신재는 그 선부른 판가름과 억지 이름표의 충동에 대해 이렇게 충고한다.

(내가 글 하단에서) 학문의 문로(門路)를 두고 장황하게 말한 것은 정말로 불만이라 씨익 웃을 수밖에 없다. 군자의 학문은 ‘실제 실행(行)’에 중점을 둔다. 참으로 능행(能行)하고, 진실로 정수(正修)하여 대본(大本)을 세운다면, ‘나는 누구 문호요’라고 말하지 않더라도 다 성인의 제자이다. 그런 실질 없이 문호만 정한다면 주자에게 붙으면 주자에게 누가 되고, 양명에게 붙으면 양명에게 누가 된다. (또 실질이 없다면) 주자를 배반한다 하여 주자에게 무슨 손해가 될 것이며, 양명에게 붙는다 한들 양명에게 무슨 득이 되겠느냐. 너는 이것을 깊이 생각지 않고, ‘너와 내가 꼭 무슨 학문’이라고 밝히겠다고 드는 게냐.<sup>15)</sup>

13) 심경호, 『강화학파의 문학과 사상(3)』(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5), 책머리에.

14) 위의 책, 책머리에.

15) 위의 책, 344쪽. 번역은 약간 수정. “下段以學問門路張皇爲說, 誠不滿一莞爾也. 君子之

이 선언은 깊이 참고해야 한다. ‘실제 실행’을 축으로 논할 때, 우리는 주자학과 양명학을 빙탄불상용으로 보는 인습과 고루를 탈피할 수 있게 된다. 사상은 체화과정에서 서로 뒤섞이고 상승하기에, 그 융합의 개성들은 굳은 이름표 하나에 갇히지 않고, 독자적 생명력을 내뿜는다. 우리는 이 활발발의 지점을 잡아낼 전혀 다른 프레임을 찾아내야 한다. 기존의 이름표에 쉽게 안주하면, 실재를 놓치고, 쉽게 박해의 유혹에 피비탄내 풍기게 되기 쉽다. 조선의 유학이 거기 발목이 잡히고 골병들었다.

어쨌거나 이것 하나는 말할 수 있다. “신재 학문의 성격을 양명학”으로 규정하려는 ‘관성’에 대해서이다. 위당 정인보는 신재가 “초원이 왕씨학을 전주(專主)함을 미사(微辭) 규절(規切)”하였지만, 신재는 “실로 양명학에서 심조자득(深造自得)한 이”로서, “그의 미사(微辭)는 아무래도 꾀사(詭辭)”라고 말했다(『양명학연론』, 담원 전집 2. 심경호, 180쪽에서 재인용). 그러나 이 판단 또한 치우친 것이 아닐까.

신재는 아버지 원교의 두 번째 유배지 신지도에서, 어느 날 꿈에서 주자를 만난다. 1762년 그의 나이 25세 때이다.

자난날 꿈에 손님이 있었다. 주자라고 하셨다. 사려를 어떻게 제거해야 하느냐고 묻자, “그것은 적에 맞서 진을 치는 것과 같다. 사방이 견고하면 누가 들어올 수 있겠느냐. 자신을 먼저 견고하게 하지 않으면 그것은 속히 관을 벗어 항복하는 것과 같다”고 하셨다. 그리고 다시 말하시길, “인의예지의 행실은 신(信)이 근본이다. 신이란 실(實)이다. 실이 없이 인의예지가 저절로 행하여지는 법이란 없다. 하학은 먼저 이것을 힘써야 한다.”<sup>16)</sup>

신재는 자신의 성격이 “의지는 있으나 간절함이 약하고, 실천은 하되, 추동력이 약하다”고 자책하며 신(信)을 강화하고자 하는 각오를 다졌다. 이 뜻을 삼아 스스로 신재(信齋)라 자호했다.<sup>17)</sup>

學，行之爲貴。苟能行誠正修而立大本，則雖不自謂某門，固聖人之徒，若不能行而徒定門路，則將附朱則累朱，附王則累王，雖曰背朱，何損於朱，雖曰附王，何德於王。子不此之思，而必欲明子與我爲某學邪。”(『信齋集』 “答虞臣.” 한국문집총간, 252-464c.)

16) 위의 책, 184쪽. “昔者之夢，有實敬謂之曰，朱子問除思慮曰，此如臨敵而設陳，若我四面堅固，其誰能入，不先固於我，是速冠也，已而曰，仁義禮智之行，信爲本。信也者，實也。苟無實，仁義禮知，非可自行，下學所先務也。”(같은 책. 한국문집총간, 252-453c.)

17) 같은 곳. “嗟乎，不敏之不能自進，其故何也。心有所向，慢泛而無實心，行有所擬，苟假而無實行，蓋由未信也。雖不敢謂先賢必有所感而誘不敏，不敏之知有愆過者，亦夢爲之兆也。其敢忘，名齋以信，標齋之壁而自觀。壬午歲正月戊午，書。”

그의 평생의 지취를 전해준 사람이 양명이 아니라 주자인 것은 예사롭지 않다. 그는 “왕양명의 견식이 투오(透悟)하다”고 하고, “그가 가르치는 성찰극치(省察克治)의 방도나 집의양기(集義養氣)의 설이 모두 명확하고 쏘락하여 말세에 공리(功利)에로 내달리는 폐단을 치유하는 데 매우 유익하다”고 말하면서도, 양명이 “부고(浮高) 염선(染禪)에 빠졌다”고 비판했다. 가령 예(禮)를 속박이라 하여 배척한 것과, 불교에 물들어 있다는 것이다.

만일 “(양명처럼 위아래 없이) 부채를 사용하라 하여 예절에 얽매이지 말라 하고 모두 증점의 방광(放狂)을 배우고, 이천(伊川)의 근수(謹守)를 배척하게 하여 표표방일로 일문(一門)의 풍속을 이루게 한다면 과연 이것이 군자가 사람을 가리키는 도리인가”<sup>18)</sup>라고 되묻는다.

그는 완구 신대우에게도 했던 말을 이우 충익에게도 반복한다. “주희암의 위학지본(爲學之本)은 바꿀 수 없다!(晦菴爲學之本無以易之)”

위의 두어 가지 인용은 신재의 학문이 정통 주자학에 가깝다는 것을 알려준다.

이 사태는 강화학의 통념에 적지 않은 곤혹이다. 하곡은 차치하더라도 항재, 그리고 신재는 공히 비록 고루한 주자학자들처럼 양명학을 배척하지는 않았고, 적극 배웠으되, 양명학을 자신의 학문 중심으로 설정하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 강화학의 중심에 주자학이 있었고, 이 사태는 그동안 “있는 그대로” 드러나지 않은 듯하다. 지금까지 그 지점을 살펴보았다. 우리는 강화학을 읽는 평심(平心)한 안목을 다시금 획득해야 하지 않을까.

그럼 우리는 강화학에 이름표를 붙이기를 포기해야 하는가. 이름표 없이 무엇으로 그 ‘생명력’을 알 수 있을 것인가. 주자학이나 양명학이라는 거대 포괄적 이름(?)이 적절하지 않다면, 다른 이름표를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혹은 더 세분화된 이름표를 만들어 붙이는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18) 심경호, 앞의 책, 345쪽 참조.

## II. 원교의 기질(氣質)론, 신재의 객기(客氣)론

미리 말하자면 원교-초원은 양명학의 기풍을 갖고 있고, 항재-신재는 주자학의 기본에 터하고 있다.

원교와 신재는 부자 사이인데 둘의 기질은 매우 다르다. 나는 이 둘이 ‘기질(氣質)’을 보는 서로 다른 접근을 소묘해보고자 한다. 이는 ① 주자학과 양명학을 거대 이름표가 아닌 ‘구체적 코드’를 통해 접근함으로써 두 사유를 대립이 아니라 ‘같은 테이블’ 위에서 읽는 법을 제시해줄 것이라고 생각하며, 아울러 ② 철학적 논변이 그저 추상적 논리게임이 아니라 그들의 실존적 체험과 지향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을 알리는 실증이기도 하다는 생각에서이다.

원교는 기질(氣質)을 믿고, 신재는 객기(客氣)를 우려한다. 이 둘이 그들의 길을 갈랐다. 물론 두 사람의 길이 달랐다는 것을 별로 말하는 사람이 없는 듯한데, 나는 정양완, 심경호 두 분 교수의 책에 인용된 그들의 목소리를 통해 그 점을 읽고 느꼈다.

### 1. 원교의 기질성(氣質性) 동선(同善)론

원교는 형 항재와의 사이에 ‘기질론’을 두고 논쟁을 벌인 적이 있다.

“옛 현인에 비긴다면 / 놀이나 개미처럼 하찮은 존재이면서 / 오히려 감녕 모르고 / 내 소견을 고집했네. 이기(理氣)의 대원(大原)에 감히 이론(異論)을 내보았네 / 또 기질성(氣質性)은 (홍악한) 환두나 기(夔)를 막론하고 처음 다 같이 선(善)했으 / 길이 다르지 않다고…….” 이 파천황의 주장에 형 항재는 불같이 눈썹을 치뜨고 ‘난도(亂道)’를 유포한다고 책망하고 경계해 마지않았다고 한다.<sup>19)</sup>

원교는 ‘인간의 자연적 기질’을 믿었다. 이때 기질이란 좁혀 ‘마음’이라 부를 수 있는 것으로, 상황에 반응하고 욕구를 표현하는 인간 에너지의

19) 정양완, 앞의 책, 94쪽. “弟實驟然，剽竊訓誥，比之古賢，蟻蟻蚍蜉，猶或僭濫，敢守所見，理氣大原，敢作異論。且氣質性，勿論兜夔，始同然善，日無異達，兄謂亂道，奮然揚眉，責語警切，明斷如觸，不以下愚，棄置不顧。”(『圓嶠集選』 권6, 祭文, “祭恒齋從兄文.” 한국문집총간, 221-497c.)

기제와 양상을 포괄한다. 현대어로는 감정, 의지, 사유, 그리고 태도 등을 포괄하고 있다. 원고는 이 기질의 ‘자연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여기는 것이다. 그저 그것을 ‘솔직히’ 임진(任眞)하고, 부자기(不自欺), 자신을 속이지 않으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자학의 원론은 ‘교기질(矯氣質)’이라는 말이 드러내주고 있듯이, 이 반응의 양상과 태도를 교정하고자 한다. 그래서 기(氣)와 더불어 이(理)가 ‘표준’으로 ‘가치’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기론은 현실과 이상 사이의 긴장을 드러내주고, 그 이상에 따라 의지와 감정을 다스리며, 삶의 태도를 바꾸고 사회의 구성을 변화시키며, 정치와 평화를 달성하고자 한다.

만일 현실에 만족하고,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 이(理)는 적극적 지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나중에 보겠지만 항재와 신재는 그 둘 사이에서 혈전불이(血戰不已)하다가 ‘이상’ 쪽으로, 즉 ‘자신의 교정’과 ‘성숙’으로 길을 잡았던 것이다.

그러나 원고는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 태도는 예술가들의 전형적 태도이다. 중국의 예술정신이 이(理)를 내세우지 않고 ‘표현’과 자연스러움을 중시하는 도가에서 피어난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는 조선의 명필이자 시인으로, 이를테면 “감정을 꾸미지 않고, 일상의 구체적 체험의 연사를, 사회적 시선에 연연해하지 않고, 오직 자신만의 언어로” 펼쳐나간 사람이다.

원고는 도학가들의 체면이 없고, 그야말로 솔직(率直)하다. 몇 가지 면모와 사례를 모아 적어본다.

## 1) 울음

그가 부령에 유배되어 쓴 글들, 『두남집(斗南集)』에 실린 글들은 몇 가지 모티프로 구성되어 있다. 가장 뚜렷한 것은 ‘눈물’이다. 그는 울고 또 운다. 우는 정도가 아니라 피눈물과 통곡이 글의 전편을 꿰고 있다. 비명에 간 아내를 그리워하고, 같은 귀양 신세인 친형, 종형들이 하나 둘 죽어나갈 때마다 통곡에 몸부림친다. 그 울음의 배경은 좋은 시절의 풍경들이다. 가족들이 오손도손 좋은 날들을 만나 웃고 떠들 때, 아내의 생일상이나 늦게 본 어린 딸의 재롱들이 유배의 음울한 땅 저편에서 기억 혹은 꿈으로 나타난다. 그는 그 ‘인간적 감정’을 숨기지 않고 다

드러낸다. 조선의 근엄한 시들이나 음풍농월의 난만 속에서 감정을 이렇게 직설적으로 토로한 시들은 드물 것이다.

## 2) 일상

그의 기억 속에는 ‘짜잘한 일상’이 있다. 그의 기억은 세밀하고 묘사는 짙진하다. 가령, 아내의 생일에 친척들이 밥을 치고 술을 내오는 풍경 묘사를 보라.

아/ 오월이라 초사흘은 / 그대의 생일 / 해마다 이날 / 창이 환해지기도 전에 /  
아들 조가 며느리고 딸이고 / 모두 와 새벽 문안 드렸었지 / 나 역시 일찍 일어나 / 나  
아가 그대에게 말하길 /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 / 마땅히 갖은 음식 차려 / 아들  
손자까지도 / 좋은 날을 즐깁시다그러’ 하면 / 그대는 웃으며 대답했었지 / ‘내가  
뭐 대수롭기에 / 내 생일 땀에 / 번거롭게 굴게 뭐 있어요?’ / 나 또한 싱글벙글  
말했었지 / ‘아들 둘 장가 들었잖다 / 집안의 마님이 되었는데 / 높지 않다면 뭐 높소  
그래?’ / 이렇게 주고받다 보면, 아침 해는 어느덧 동실 / 그대 친정 계집종이 벌써  
문에 들어오니, 머리에 목판을 이었고 / 쪽빛 보를 덮었는데 / 손을 들어 그릇을 내려놓  
으며 / 입으로 마님 말씀 전하겠다 / ‘이게 비록 보잘 건 없어도 / 식기 전에 딸에게  
줍직하다’고 / 한쪽으로 열어젖히니 / 뜨거운 김이 솟아오르네 / 국수장국에 꿩에 /  
고기애 생선까지 / 새 며느리가 살림 맡아 / 나누매기 재빠르고 부지런하여 / 마주  
앉아 실컷 먹는다 / 다들 고루고루 ……<sup>20)</sup>

## 3) 사랑

그는 아내에 대한 사랑과 연모를 숨기지 않고, 자식들을 있는 대로 귀여워하며 때로는 같이 놀아주는 ‘주책’까지 거리낌 없이 그린다. 늦게 본 딸이 눈에 밝혀 만사가 하릴없다. “손님이 오면, 왜 빨리 안 가고 죽치냐”며 눈과 마음이 아이 있는 곳으로 향해 있어, 손님과의 수작을 건성건성 하다가 손님이 자리를 뜨기 무섭게 아이를 안고 볼을 비벼댔다.

20) 정양완, 앞의 책, 190-191쪽. “三月十一日己卯, 實我亡室孺人文化柳氏初菴, 夫李匡師鷄鳴出, 野哭竟日, 哀痛作文, 待使送家, 令以五月辰日, 讀于筵. 嗚呼, 五月之三, 君所降辰, 每歲是日, 窗白不分, 子侄婦女, 齊來省晨, 余亦蚤作, 相就語君, 今異當日, 合有具陳, 以娛令節, 且及兒孫, 君笑而答, 吾何貴尊, 以吾之生, 何足有煩. 余又笑謂, 兩子成婚, 爲家主母, 不尊何云, 如是訓對, 朝旭已翻, 君親庭婢, 忽已入門, 頂戴木器, 覆以綾巾, 手舉器下, 口致主言, 此物雖些, 可賜兒溫, 一面開解, 熱氣騰噴, 湯餅和雉, 有肉有鱗, 新婦爲政, 分排敬勤, 相對極飽, 衆皆稱均.”(『圓嶠集選』 권6, 祭文, “孺人生日祭文.” 한국문집총간, 221-504c.)

#### 4) 유머

위의 글에서 보듯 아내의 생일날, 자식 친척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그는 능청스레 농담도 마다하지 않는다. “생일이라면 ‘태어난 날’인데, 지금 갓 태어난 사람이 어째 웃고 떠들며, 키는 어째 금방 컸으며, 젖이 아니라 밥을 먹고, 이것저것 아는 것이 어째 이리 많누?”라고 해서 좌중을 웃긴다.<sup>21)</sup>

감정의 솔직한 표현을 위해 ‘문장’ 또한 달라져야 했다. 원교는 자신이 ‘문장법’을 제대로 익히지 못했다고 겸양한다. 그러나 “자신의 정(情)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기 위해 그는 격식과 구투, 그리고 인용과 전고를 피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항재를 위해 쓴 제문에서 그는 말한다.

이제 아우가 먹을 짝어/언니 제문 지으려 하니, 슬픈 마음 한갓 말뿐이라지만/가슴 속에 차곡차곡 명들어/숫구쳐 터져 나옴/스스로 억제치 못하오며/게다가 지극한 정에/문장법[文法]을 따질 것인가/이에 ‘속된 말로(俚語)’/마음속 느껴움 모두 펴냈네.”<sup>22)</sup>

아내의 제문 마지막에서도 그는 말한다.

외진 변방에 홀로 누우니/온갖 생각 얼키설키/눈물은 닦아도 하염없고/한(恨)은 마치 뿌리에 서린 듯/이제 일상의 말(常談)로/붓을 날려 글을 지어/인편 기다려 멀리 부쳐/애틋는 그대 녀에 부치노라.

그는 이처럼 ‘이어(俚語)’, ‘상담(常談)’으로 글을 이끌어어나간다. 원교의 문장을 읽으며 신기했던 것은 전고를 거의 쓰지 않고 문장도 격식 있는 고투가 아니었다는 점이다. 글자 수도 파격이 자유롭고, 우리말의 어순을 따라 도치된 것들도 심심치 않았다.

그는 “변진언(辯陳言)”에서 자신의 문장론을 피력한 바 있다. 한퇴지가 “진언(陳言)을 제거해야 한다”고 하자, 왕세정·이반룡 등 명말의 새 문장론은 ‘기벽한 글을 닦으려 하는데’, 원교는 이야말로 ‘진언’이라고

21) 같은 곳. “余顧而戲, 今日生人, 何遽笑語, 何遽長身, 不乳而饌, 又何其神, 其所夙悟, 遠過高辛, 一座皆笑, 君亦啓齒, 意謂至老, 此樂可頻, 以是自慰, 聊忘賤貧.”

22) 정양완, 앞의 책, 98-99쪽.

힐난한다. 그는 문장의 핵심은 “심상(尋常)한 글자를 잘 쓰는 데(善用尋常字) 있다”고 역설했다. 비유컨대 “시정의 보통 사람들을 잘 몰아다가 그들로 하여금 죽을힘을 다하도록 하는 데 있다!(驅市人而善制之, 皆可致死力)”는 것이다.<sup>23)</sup> 문장은自得(自得), 자신의 통찰을 중심으로, 자작주장(自作主張), 드러내고자 하는 자기만의 메시지가 있어야 하는데, 자신의 목소리를 갖게 될 때 문장이 ‘꾸밈없이’, ‘빌림 없이’, 스스로 지어져 있을 것이라고 썼다. “누비에 자른 비단을 잘라 붙인다고 문채가 생기겠는가?”

그의 문장론의 핵심도 ‘내부의 자연스러움’을 기저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원고는 ‘자연스러운 정감’이라면 그려내는 것을 꺼리지 않은 듯하다. 그는 도학자들이 혀를 차거나 숨기고 싶어 하는 것들, 즉 ‘기질의 병폐’나 ‘사됨(私欲)’으로 타기할 만한 것들까지도 천연스레 ‘혐오감 없이’ 그려낸다.

내가 놀란 것은 막내 누이동생을 제사 지낸 글 가운데의 내용이다. 올해 그해 옥사가 있던 해 8월 유(柳)씨의 부인이 된 막내 여동생이 죽었다. 원고는 젊고 병 없이 튼튼하던 동생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그 성격과 일화를 적어나갔다.

① 이 누이는 ‘화장법’에 상당한 기술이 있었던 듯하다. 찾아와서 부탁하는 사람이 많았다고 한다.

수줍은 아낙네들 / 잔치에 갈라치면 / 경대 열고 거울 대하여 / 다들 돋보이게 해달라네 / 누인 뜬금없다 거절 않고 / 붉은 루주(朱罍)로 입술을 고루 칠하고 / 아이새도(黛)로 푸른빛 더 칠하고 / 콤팩트(粉)로 얼굴을 더 하얗게 해주니 / 흰 김에 문채를 놓은 듯 / 비단에 꽃받침을 더 놓은 듯 / 갑자기 딴 사람이 되고 / 갑자기 경충 격이 높아져 / 모두들 조화 부렸다 이르면서 / 내면 혀를 다물 줄 모르더니만…….<sup>24)</sup>

② 이어 집안의 덕담도 적고 있다.

온 집안에서 하는 말 / 지금 비록 궁핍하지만 / 이 덕성에 이 재주에 / 관상 또한 박복하지 않으니 / 이권(利權)에다 재복(財福)을 / 마침내 잡고야 말리라고…….<sup>25)</sup>

23) 위의 책, 263쪽.

24) 위의 책, 233-234쪽.



첫 번째 것은 ‘화장 기술’에 대한 찬미이고, 두 번째는 ‘권세와 이익을 얻게 되리라’는 축원이었다. 화장은 유학자들이 높이 칠 리 없는 ‘외면의 꾸밈’이고 ‘시선을 속임’이며, 덕성(德性)과 관계없는 것이다. 더구나 권세와 이익을 축원한 것은 이즈음 말로 치면 “부동산으로 대박이 나거나, 남편이 장관 총리로 발탁될 것”이라고 축수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 글은 원교의 집안이 통째로 ‘세속적 욕망과 기대를 숨기지 않았음’을 그대로 전하고 있다.

원교는 이것이 당대의 있는 그대로의 ‘정황’이고, 이들 세속적 열망은 누구나 갖고 있다는 뜻에서, 그 역시 임진(任眞), 부자기(不自欺)의 심정으로 붓을 옮긴 듯하다.

이 너무나 솔직함은 역시나 형 이광찬으로부터 한 소리를 듣게 했다. 그는 『평두남(評斗南)』에서,

(①의) 화장하는 묘사는 전엄(典嚴)이 결여되었으니, 분 바르고 연지 칠하고, 치장하는 것은 수모(手母)나 하는 것이다. 누이동생이 혹 그 재주를 가졌더라도 어찌자고 이렇게 장황하게 표현했느냐. 이것은 번지르르하게 말 늘어놓는 버릇이지 글이 높이는 도가 아니다. 또 (②의) “이병재권(利柄財權)” 녀 자는 품위(雅)가 없다.<sup>25)</sup>

도학의 시선으로 보면, 화장하는 기술은 하찮은 기질의 능력이고, “이병재권”을 말하는 것은 버리고 억눌러야 할 사욕(私欲)에 해당한다. 그런데 원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담담히 눈감지 않고 그리고 있다. 그것을 기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것이 가문의 위신에 누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은 점만은 분명하다.<sup>27)</sup>

원교의 이 기질 낙관은 이(理)의 ‘표준’을 의식하고 예(禮)의 ‘엄정함’을 강조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위태롭게 보였을 것이 틀림없다. 내가 보기에 는 특히 원교의 아내가 그 ‘신칙(申飭)’을 담당할 듯하다. 이를테면 그녀는 원교의 ‘둥그런’<sup>28)</sup> 기질을 시시콜콜 고쳐보고자 했다.

25) 위의 책. “一家恒言, 今雖窘陋, 之德之才, 相亦不薄, 利柄財權, 終必把握.”

26) 위의 책, 237쪽.

27) 정양환 교수는 이렇게 말한다. “잔치에 가는 아낙네의 단장을 도와줄에서 그녀의 수더분하고 착한 심성을 엿볼 수 있고 [...] 이병재권이란 말하자면 동네의 점쟁이나 선무당 섬긴 무식한 아낙네의 입에서 나오는 ‘돈방석에 올라앉는다’는 식의 표현으로 속되어 차라리 솔직해 보이기도 한다.” 위의 책, 237쪽.

그녀는 이틀테면 자신의 기질에 ‘퍼질러 앓는’ 원교를 늘 일으키고 몰아서 “있어야 할 곳”으로 밀어 보냈던 듯하다.

그녀는 아이들이 ‘이익’이라는 글자를 입에 올리거나, “나 좀 쥐”라는 소리를 들으면 몹시 책망했다고 한다.

어린 것들은 효제와 몸가짐만 알아야 하거늘……. 사대부 집안 자체가 어찌나 좀 달라는 소리를 입 밖에 낸단 말이나. 세상에 탐욕스러운 불법자(不法者)도 이 버릇에 점점 배어든 데서 멀지 않느니라.<sup>29)</sup>

그녀는 남편 이광사의 편지까지 늘 검열(?)했다 한다. 글 가운데 남한테 아쉬운 소리를 하거나 보내달라는 소리가 있으면 그때마다 편지를 고쳐 쓰게 했다. 친구 사이라서 별 문제가 없다고 해도 막무가내였다. “내가 어떻게 마련해볼 테니 다시 쓰거나 하라”면서……. 원교는 너무 고집스럽다고 웃으면서도 필경 다시 쓰고야 말았다고 한다. 고을 원이나 등에서 선물이 오면 아내는 꼭 따져 물었다. “그가 알아서 보냈는지, 혹시 달라 소리를 해서 보낸 것인지…….” 달라 소리를 했다고 하면 몹시 언짢아하면서 “내가 몇 번이나 그러지 말라고 간했는데, 그러셨단 말이나”고 몇 날 며칠을 나무랐다고 한다.

원교의 글씨를 받으려고 사람들이 담배나 술, 꿩, 생선 등을 가지고 오면 반드시 돌려보내라고 뉘달했고, 원교는 “받아두소, 손님은 갔소”라고 대꾸하며 안방으로 들어갔다고 한다. 아내의 잔소리는 늘 “저건 무슨 명목으로, 왜 받으셨소?”였다고 한다. 원교가 인정(人情)이라서 박절히 거절하지 못했다고 하면, “장부가 이렇듯 맺고 끊질 못하면 무슨 일을 하시겠소. 받기를 사양하는 의(義)는 참으로 중하고, 한때의 체면은 지극히 가볍다면서 한때의 가벼움을 건디고 무거운 허물을 짓지 말라”고 했다 한다. 원교는 “그 말에 깊이 탄복하면서도 본성이 못나 터져서 결국 고치지 못했다”고 쓰고 있다.<sup>30)</sup>

이것이 원교의 기질(氣質)이다. 원교는 아내의 말이 언즉시야(言則是也), 옳다고 믿으면서도, 아마도 내 생각에는 “마음 깊이 꼭 그래야

28) 혹, 원교 자신의 호가 가진 뜻이 선산이나 살던 서울의 ‘만리재 고개’에서만 온 것이 아니고, 이 성격적 특질과 뜻한 바 지향을 동시에 함축하고 있지는 않을까?

29) 정양완, 앞의 책, 35쪽.

30) 위의 책, 38쪽.

한다고, 아내의 말이 결단코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은 듯하다. 만일 그랬다면 지행합일(知行合一), 그는 자신의 태도를 성격을 고쳐나갔을 것이다.<sup>31)</sup>

그는 기질 밖에 다른 이(理)의 표준을 설정해, 감정과 지향을 분열시키지 않고, ‘저 스스로임’을 지켰다. 따지지도 꾸미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이 기질 중시의 사유는 ‘교감’으로 이어진다.

그의 기질론의 백미는 다음 「내도재기(來道齋記)」이다. 상고당(尙古堂) 김광수(金光遂, 1699-1770, 자는 成仲)의 서재에 붙인 글이다. 김광수는,

나를 위해 늘 맛있는 술을 마련해두었다가 흥이 날 때마다 나를 생각했고, 나를 생각할 때마다 바로 말을 보내 나를 불렀다. 그때마다 나도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 문에 들어서 서로를 바라보고 손을 맞잡고서 웃었다. 서로 마주한 채 다른 말은 하지 않고 책상 위에 놓인 책 몇 권을 들어 쓱 읽고 낡은 종이를 펼쳐 주(周) 나라 북에 쓰인 글과 한(漢) 나라 묘갈(墓碣) 두어 개를 어루만지노라면, 성증은 벌써 손수 향을 사르고 있다가, 두건을 젖혀 쓰고 팔뚝을 드러낸 채 앉아서 손수 차를 달여 내게 마시도록 건넸다.

온종일 그렇게 편안하게 자내다가 저물 무렵에야 집으로 돌아왔다. 어떤 때에는 여러 날이 지나도록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고, 집으로 돌아간 내가 다시 그리워져 바로 나를 부른 일도 있다. 또 어떤 때에는 일이 생겨 열흘이 지나도록 서로 만나지 못해 즐겁지 못한 적도 있었다. 이것이 우리 두 사람이 서로를 너무도 좋아한 사연이자 이 서재를 그렇게 이름 붙인 이유이다.<sup>32)</sup>

둘은 서로 기질이 너무도 달랐다. 원교의 글에 의하면, “정밀함과

31) 원교 집안은 아내와 아버지의 역할이 바뀐 듯한 감도 있다. 두 아들을 가르칠 때 아내가 자신보다 “열 배는 엄하게 공을 들였다”고 한다. 원교가 “지나치게 자식들을 은애하는 것을 보고 늘 그러지 말라고 간했다”고 한다. 그녀는 늦게 낳은 딸을 깊이 사랑했으나, “오냐 오냐”하며 어르지 않았다고 한다. 그 엄격함이 액을 만나 경황없던 시기에 自盡을 결정했고, 간절한 유서를 남길 강단도 여기서 나온 듯하다. 원교는 “世道가 타락해 책선하는 벗의 말을 들은 적이 없는데, 집에만 들어가면 신칙하고 간하는 말을 쉴 새 없이 들어야했다”고 적었다. 긴 유배길에 오르며, 그 여진 조연자를 잃은 상실감을 표하기도 했다.

32) 안대회, 「친구를 부르는 방」, 한국고전번역원, 『고전의 향기』 코너에서 인용. “爲余背置好酒, 興發輒相思, 思輒以馬邀之, 余亦欣然而赴. 入門相向, 撫掌而笑, 相對無他言, 取案上書數局快讀, 展古紙撫周鼓漢碣二三, 則成仲已手焚香, 巾露臂坐, 自烹茶相啜, 夷猶竟日, 迫曠乃歸, 或累日不歸, 歸輒復相思而邀, 或有事經旬不相參, 相爲之不樂也. 此吾兩人相好之篤, 而齋之所以名也.”(『圓嶠集選』 권8, 雜文, “來道齋記.” 한국문집총간, 221-535a.)

거침, 빠름과 둔함, 우아함과 저속함이 서로 정반대”였다고 한다. 그런데도 둘은 말이 없어도 편안한 막역지우였다.

요컨대 원교는 “기질을 고치려 하지 않고, 기질에 맡겼다”고 할 수 있을까. 노장의 기(氣)의 사유는 “이(理)의 표준을 향해 가지 않음으로써” 그리고 “자체 내에 표준을 설정해줌으로써” 이원의 분열을 막고, 소통과 합일의 계기를 마련해준다. 노장은 원초적 분열이 나와 남을 가르고, 자기 밖에 표준을 설정함으로써 생겼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들은 이(理) 없이 기(氣)의 사유에 철저하다! 근원이나 이념으로서의 이(理)가 없어야, 기(氣)가 평등해지고, 그 평등하에서 사물들 사이에, 소통이 가능하고 기맥(氣脈)이 열려간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들은 이(理)를 기(氣) 내부에, 그것도 불사(不使)의 자연(自然)으로 설정한다. 원교의 「내도재기」는 장자가 그리는 “도(道) 안에서 노니는 친구들”, 그리고 “물고기의 즐거움을 완상하는 장자”의 풍모를 닮았다. 이 점에서 노장과 양명학은 추향을 같이하는 바 있고, 그래서 양명학이 노장 선학과 더불어 하나로 묶인다. 양명학 자신은 이를 삼교 통합이라 하여 긍정적으로 보고, 주자학 측에서는 “그래서 이단(異端)이라고 하지만…….”<sup>33)</sup>

항재와 원교의 이기(理氣) 논쟁은 위에 적은 저간의 곡절과 짝을 이루고 있다. 항재는 영조 18년에 “변도보이기설(辨道甫理氣說)”이라는 중요한 글을 남겼다. 여기서 “성선(性善)은 다름 아닌 기질 자체의 선”이라고 주장하는 원교와, 그렇지 않고 기질의 성의 한계와 편협을 지적하고, 그것을 본연지성에 대해 교정해야 한다는 항재의 논의가 부딪혔다. 앞에 적은 것들을 빗대자면 항재의 편에, 원교의 아내와 원교의 아들 신재가 버티고 서 있고, 원교는 거의 홀로!이다.

## 2. 원교, 아들의 심학(心學)을 말리다

신재는 마음을 검속하고, 그 기질을 교정하고자 하고, 원교는 그 위학(爲學)의 방법을 우려해 마지않는다. 부자의 길이 서로 달랐던 것이다.

원교는 “참을 인(忍)이 미덕이 아니라”는 말로 시작한다. 장공예가 9세 대가족을 유지하는 비결로 인(忍)자 백 개를 써 보인 적이 있지만

33) 원교는 외사촌 형 민옥에게 감발되어 “기질을 고쳐보려”고 노력한 적이 있다. 이 곡절을 음미해야 하는데, 지면도 자료도 부족하다. 나중의 연구로 남겨둔다.

원교는 이 참음이 눌러 독이 되고, 언젠가는 마침내 터져 나올 것이라고 경계한다. “인(忍)이란 물길을 막는 것 같아 종당에는 터지게 마련이며, 터지게 되면 그 형세는 반드시 더욱 위태하다.(忍如防水, 終必決, 決其勢必益悍)”<sup>34)</sup> 그는 장공예의 전에는 9세 동거의 기록이 있으나 그 후에는 그런 말을 듣지 못한 것도 인(忍)이 망친 결과라고까지 극언한다. 번뇌와 유혹은 물(物)에 붙여 ‘흩어버릴’ 일이지 참거나 담아두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인내란 특정한 형역이나 사태에 ‘대중요법’으로 쓸 것이나 일반적 위학방법으로 인(忍)을 각고(刻苦)면려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 연장에서 원교는 심학(心學)의 방법을 달리 잡았다. 신재가 마음을 검속(檢束)하고 교정하고자 하자, 원교는 마음을 구제(驅除)해서는, 즉 ‘몰아대고’, ‘내쫓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타이른다. “마음은 집지검속(執持檢束)할 것이 아니라 우유활발(優游活潑)로 길러야 한다.”

원교는 그저 방심(放心)을, 집 나간 마음을 순간의 ‘자각’을 통해 불러들이는 것에 주력하라고 말한다. 그는 역시나 ‘기(氣)의 사람’답게 맹자가 말하는 ‘양기(養氣)’를 강조한다. 그것은 마음의 불건전한 과잉, 이를테면 『대학(大學)』에서처럼 불합리한 분치(忿懣)와 호오(好惡), 우환(憂患), 공포(恐懼)를 ‘덜어낼 뿐’, 특정한 ‘기대’를 갖고 마음이나 기질을 ‘교정’하거나, ‘한사코 붙들고 있거나(執捉),’ 억지로 ‘강제(彊制)’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그는 자기 마음의 인(仁)의 자연성을 믿고(必於仁), 그것이 ‘어긋나지 않도록’ 유의하는 것을 치심(治心)의 방법으로 제시했다. 원교는 이것이 안자와 공자가 걸은 ‘즐김의 길’이었다고 부연했다. “마음은 각고(刻苦) 강제해서는 안 된다!”

원교의 이 ‘즐거움’의 길, 자기 내부의 인(仁)에 의거해, 그 발양을 기약하는 이 즐거움의 길을 어디선가 본 적이 있지 아니한가. 원교는 이 곡절을 한마디로 선언한다. “마음이 곧 성이다(心卽性也)!” 이는 양명이 설파한 심즉리(心卽理)와 같은 취지를 표명하고 있다.

원교는 이 취지에서 아들 신재로 하여금 ‘심학(心學)’에 골몰하지 말도록 훈계했다. 왜냐? 심경호 교수가 읽은 대로 “평상시에 심학에 각고공부하면 도리어 마음에 생병(生病)을 갖고 오기” 때문이다.<sup>35)</sup> 그레

34) 심경호, 앞의 책, 39쪽.

35) 지금 말하는 心學은 양명학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마음의 각성과 수련을 위한 의도적·체계적 훈련을 총칭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오히려 주자학의 체계적 방법을 가리키고 있는 중이다.

서 원고는 아들이 논한 심학에 대한 수많은 논설을 “나는 읽고 싶지 않다”고 잘랐다.

### 3. 신재의 길, 객기(客氣)를 다스려야 한다

신재는 아버지의 훈계 때문인지 모르지만, 심학(心學)에 대한 논설을 남겨두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아우 초원과 나눈 편지로 보건대, 그의 위학(爲學)의 길은 아버지와 사뭇 달랐음을 알 수 있다. 하곡의 손녀와 결혼했지만, 공부의 길이 꼭 하곡의 양명학을 따라가라는 법은 없다. 아버지와도 길을 좀 달리했음에라.

그는 심학(心學)에 몰두했다. 즉, 마음의 치유와 기질의 교정이라는 주자학의 이원론의 테제 위에서 학문을 세웠다. 주자학의 심학(心學-理學)은 양명학의 물학(物學-氣學)과는 달리 마음의 완전함과 자족함을 느끼기보다 그 넘침과 ‘부족’을 더 첨예하게 의식한다! 그리하여 마음의 넘침을 한편 ‘억압하고’ ‘제거하면서’ 또 한편 그 부족을 ‘보충’하고, ‘양성’함으로써 완전의 이상을 향하고자 한다. 신재는 이 양 갈래 길에서 후자를 선택했던 듯하다.

#### 1) 신재(信齋)라는 그의 호부터 보자.

1장에서 보았듯이, ① 신재는 공부의 길에서 어느 날 꿈에 멘토를 만난다. 그 현인이 주자라는 것이 사태의 대체를 극명히 일러준다. 그리고 ② 그 주자는 “적진에 맞서 마음의 진지를 굳건히 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아울러 ③ 그는 자신의 기(氣)가 아직 충일하지 않고, 기질이 완미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의지는 있으나 간절함이 약하고, 실천은 하되, 추동력이 약하다”고 자책하며 ‘신(信)’을 강화하고자 하는 각오를 다졌던 것을 기억하자, 이 뜻을 삼아 스스로 신재(信齋)라 자호했다.

#### 2) 자고지심(自高之心)을 경계하다

마음의 기질에는 병통이 많다. 신재는 초원에게 “스스로 도(道)에 뜻을 두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사궐 사람이 없다고 탄식하지 말라”고 충고한다.<sup>36)</sup> 신재가 경계하는 것은 객기(客氣)이다.

객기는 사적 예고의 관성과 습벽을 둘러싸고 발현된다.

그가 초원에게 던진 충고가 있다. ‘체리(體理)’, 즉 이치의 체화가 충분치 않은 채 ‘논쟁’에 뛰어들지 말라. 미숙한 상태에서 ① 논박을 당하거나 비판을 받으면, 승복하거나 학습하려 하지 않고, ‘디펜스’, 즉 방어에 나서게 된다는 것. 미봉과 구차, 꾸밈과 기만이 동원된다. ② 디펜스에 주력하면 성찰의 계기를 준 사람을 고마워하기보다 그 사람의 논리에서 빈틈과 흠을 찾아 변박에 혈안이 된다. 그 경우 비판에 담겨진 가치를 살필 여유를 갖지 못한다. ③ 남의 잘못을 들추고 상대방을 공격해 들어가다 보면, 결국 자신의 결점을 확인하고 개선할 수 없게 되고 만다.

신재는 이 모두를 ‘객기(客氣)’로 돌렸다. “객기가 안정을 찾지 못하고, 성의(誠意)가 세워지지 않은 탓이다.(是皆客氣未定, 誠意不立之致)” 객기는 지금 쓰는 용법과 매우 닮은 바가 있다. 신재는 아마도 보통 사람이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이 ‘병통’을 초원과의 논쟁과정에서 자각하고 그것을 고쳐야 한다고 초원에게뿐만 아니라 스스로에게 다짐한다. 그는 나중에 논쟁에서 그렇게 열을 올리고 공박과 변호에 목을 댔는지 스스로 반성하기도 한다. 그는 그래서 논쟁의 무용 혹은 해독까지를 느끼고 있었다. 이 탓만은 아니겠지만 그가 “무구포(無口匏)”라는 시를 지어, “내 이제 입 없는 박으로 살겠다”고 한 것도 이 같은 반성과 통찰에 기인하는 바 있다고 생각한다.

신재는 “이 객기(客氣)를 실심(實心)과 구분하기 어렵다!”고 했다. 나는 여기가 신재가 양명학을 떠나 주자학으로 돌아온 근본 계기라고 생각한다. 자심(自心)을 믿을 경우 주자학의 용어를 빌리면 “기(氣)를 이(理)로 오인할(認氣爲理) 폐단”이 있다는 것이다.

### 3) 객기(客氣) 위에 주의(主意)를 세워서는 안 된다

신재는 스스로를 자신(自信)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경고한다. 그는 아우 초원이 주자학과 양명학을 오가는 것을 두고, “객기(客氣) 위에 주의(主意)를 정하고, 종당에는 주의 속에서 의리(義理)를 세운 것(始於客氣上定主意, 終於主意中立義理)”이라고 극언했다.<sup>37)</sup>

36) 심경호, 앞의 책, 216~217쪽.

37) 위의 책, 346쪽.

요컨대 자신이 좋아하는 바를 따라, 마음이 끌리는 것을 따라, 그 위에서 입장을 세우고 의론을 펴는 것을 경계한 것이다. 그것은 사의(私意)이지 실리(實理)가 아니다.

예고의 자기 관심 위에서 입론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진리의 이름으로 착각하고 포장하지 않는다. 신재는 양명학이 이 폐단에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아, 그리고 보니 하곡 또한 만년에 이를 경계한 바 있다. 즉, 양명학의 자기신뢰에는 “임정종욕(任情縱欲)의 폐단이 있다.”

그는 양명의 견해와 이치 가운데 “좋은 점이 많다”고 하면서도 양명의 편벽을 아울러 지적했다. 즉, “구속을 꺼리고 가볍고 황당한 취향을 지녔다는 것이다.”<sup>38)</sup>

그의 일반론은 이렇다. “사람이 성인이 아니거늘, 어찌 성벽기호(性癖嗜好)의 편벽됨이 없겠는가.(人非聖人, 豈無性癖嗜好之偏)”

이 편벽을 고치자면, 심학(心學)이, 즉 마음에 통렬한 반성과 교정의 공부가 있어야 한다! 그는 아버지 원교의 충고, “마음을 우유할발하게 하고, 다만 방심을, 집 나간 마음을 되돌리는 작업을 ‘즐겁게’ 하다 보면 어느새 도체(道體)가 자라고 있을 것”이라는 충고에 만족하지 않았던 듯하다. 마음공부는 그보다 더 심각하고 통렬한, 아울러 섬세한 작업임을 신재는 의식했던 것이다.

그는 말한다. “마음에 찢은 부분은 잘라내라!”

자신이 믿는 바에 따라, 자신이 기호하는 성벽에 따라 주의(主意)를 정하고 입론을 세우면 객관적 표준에 이를 수 없다.

무릇 세인은 체리(體理)가 실(實)되지 않아, 그저 주장하는 바에다 사의(私意)를 세우고자 하여, 알마다 이롭답다고 여기고 그러다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되어 진실을 가리는 지경에 빠져들고 만다. 열자 재목에서 한 자만큼 찢은 데가 있는 재목이라면 훌륭한 목수는 찢은 데를 베어버리고 찢지 않은 곳을 사용하여 바로 좋은 재목으로 만든다. 그렇게 함으로써 한 자의 찢은 부분이 아홉 자의 이름다움에 누가 되지 않는다. 만약 누가 ‘그 찢은 부분이 있어 더욱 그 이름다움을 드러내준다’고 우기고 제거하지 않는다면 끝내 찢은 재목이 되고 만다.

38) 물론 신재는 주자의 편벽도 아울러 적고 있다. 주자가 “『초사』, 『참동계』, 『음부경』과 한유의 글에 이르기까지 주석을 달았는데, 그것은 道가 거기 있다기보다 기벽이 편벽되었다”고 했다. 위의 저작들은 ‘實學’에 긴치 않은, 혹은 헛된 작업이었다는 비판을 담고 있다.



신재는 아버지를 따라 악인이라도 “기질이 선하다”고 말하지 않는다. 썩은 부분은 도려내야 한다고 강조함으로써 마음과 기질의 적극적 수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 III. 조선유학의 유형학과 양명학

지금까지 논한 것을 요약하자면 이렇다. ① 강화학은 곧바로 실학이 아니며, 또한 ② 그것을 순전한 양명학으로 볼 수 없다. ③ 강화학이 전반적으로 양명학의 장치를 취하고 있으나, 그 중추인물들 가운데 특히 항재·신재가 주자학의 ‘이원론’ 위에 자신들의 학문과 공부를 입지시키고 있음을 기억하자. 가령 신재를 ‘양명학자’로 소속시키고 주자학적 지향을 궤사(詭辭) 혹은 ‘포장’으로 읽는 것은, 신재가 그토록 경계한 성벽기호(性癖嗜好) 위에, 혹은 시대적 상황에 밀려 주의(主意)를 세운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선입도 팔호치고 시대가 달라졌으니, 이제 그들의 사유를 평심(平心)하게 보고, 달리 접근하는 훈련을 활성화할 때가 되었다. 나는 주자학과 왕양명이 같은 주제를 두고 논란했다는 데 중점을 두었다. 둘을 배타적으로 두기보다 ‘같은 인간의 문제를 고민하고’, ‘같은 용어와 어법으로 사고했으며’, ‘양명은 주자의 문제를 안고 고민했다는 것’에 유의했다.

그러고 보니 조선유학의 누구도 주자학의 전형일 수 없고, 강화학의 누구도 왕양명의 일거수일투족을 그대로 따라한 사람이 없다. “티베트의 사원에는 승려 수만명의 불교가 있다”는 말을 기억하고 있어야 할 줄 안다. 강화학자 가운데 순수한 주자학자 혹은 순수한 양명학자는 없다. 그들의 생명력은 기존의 이름을 거부하고 있는 듯하다.

나는 『왜 조선유학인가』<sup>39)</sup>에서 조선의 주자학을 두고 그 코드 확인과 유형을 지형화해본 적이 있다. 프레임워크는 이기(理氣)의 상관구조이다. 이 프레임워크는 주자학자들뿐만 아니라 양명학자들도 같은 테이블에 놓고 점점 분류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심경호, 정양완 두 교수가 한 목소리로 말한 바 있다. “하곡 정제두가 이기론의 개념들로 양명학을

39) 한형조, 「조선유학의 지형도」, 『왜 조선유학인가』(문학동네, 2008).

수용한 이후……”(정양완, 심경호 서문) 그리고 항재와 원교는 이기의 개념들로 자신들의 주자학과 양명학의 격전을 벌인 바 있다. 신재와 초원은 이기라는 개념의 틀을 적극적으로 원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언술들을 이 틀로 재구성해볼 수 있을 정도이다. 원교와 신재의 학문 사이를 적어나가면서 몇 가지 노트를 첨부한 바 있다.

나는 「조선유학의 지형도」에서 원교 등의 양명학을 화담 서경덕과 더불어 ‘유기(唯氣)’로 분류한 바 있다.

우선 그때 그린 지형도를 참고로 제시한다.

구분	성향	현실을 보는 시각	삶에 대한 태도	마음의 덕성	정치적 성향	직업	대표 인물
理學	(1) 唯氣	화해	향유	자연	자유주의	예술가	서경덕, 이광사, 임성주
	(2) 主氣	긴장	참여	적응	권위주의	관료	이이, 정도전, (한원진)
	(3) 主理	좌절	은둔	자기 규율	개인주의	학자	이황 (이간)
					원리주의	무사	조식
■ 노론 主氣에 대한 회의적 경향들: 實學을 향한 과도적 균열							
1. 양명학 - 소론: 강화학 (최명길, 정제두)							
2. 서학 - 남인: 성호좌파 (이익, 권철신, 정약용)							
3. 원시유학 - 소론, 남인: (윤휴, 박세당, 정약용)							
4. 문학자들 - 북인 + 소론 + 노론 + 서얼 등 다양 (허균, 이광사, 박지원, 이옥)							
理學 + 氣學	(5) 實學	갈등	해결	책임	혁신주의	개혁가	정약용, 정조
理學	(4) 唯理	부정	저항	결단	민족주의	혁명가	이항로, 최익현, 신채호
(6) 氣學		수용	생산	습득	실용주의	생산자, 경영자	최한기

거기서 유기의 사고, 그 특징을, 화담을 염두에 두며 다음과 같이 썼다. 이 사유 라인이 원교의 그것과 궤를 같이한다고 생각했는데, 달리 생각할 사람도 많겠다. 논의는 열려 있다.

■ 이학(理學)에서의 유기(唯氣)는 화담에게서 특징적으로 보이는 사고이다. 유기의 최상의 덕목은 자연성이다. 자연은 그 감응의 기틀(機)을 통해 우주적 덕성을 실현해나간다. 이 과정에 아무 흠이 없다. 인간 또한 그러하다. 꽃이 피면 감상하고, 달이 뜨면 바라본다. 배가 고프면 밥 먹고, 피곤하면 쉰다. 인간은 우주와 동형으로서 그 음양동정(陰陽動靜)의 과정에 그대로 동참하는데 여기

별다른 ‘결핍’이 없으며, 그래서 아무런 ‘인위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없다! 유기(唯氣)의 사고는 그래서 이(理)를 따로 요청하지 않는다…….

■ 지금 이 발상을 이해하기 어렵다. 자연은 몰라도 인간이 아무런 결핍이 없고, 인위적 노력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 오직 사물의 연관과 그 과정에 대한 ‘충분한 인지’를 통해서 완전에 이른다는 주장은 사회과학자들을 놀라게 할 것이 틀림없다. 유교 안에서 화답이 그래서 이단의 이름을 얻었다.<sup>40)</sup> 나중 화답의 제자들이 그를 추존하려 하자, 임금은 “기수(氣數)만 있고, 도덕(道德)이 없으니 어찌 그를 정맥이라 하겠느냐”고 난색을 표했다고 한다.

■ 자기 안에 평화와 안정을 찾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다. 사람에 대한 생각, 사회를 보는 시각은 대체로 그 자신이 스스로를 생각하는 이미지의 투영이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이 자연이듯이 다른 사람에게도 ‘자연(自然)’을 권한다. 그리하여 개인적 결핍과 사회적 갈등을 “외적 도덕(仁義)과 규범(禮義), 강제(法制)”를 통해 제어 안배하겠다는 생각이 최소화되어 있다. 다시, 유기는 ‘신체의 자발성’을 낙관한다. 자극과 반응의 표출의 자연스러움을 그대로 인정하고 권유한다.

우리는 보고 느끼는 그대로를 “표출하고 교환하는 데” 익숙하지 않다. 오랜 유교문화의 예교(禮敎) 탓이다. 여기 좋은 점도 물론 많다. 예(禮)란 본래 “적절한 한도를 설정하여, 과도한 침탈과 억압을 막자”는 것인데<sup>41)</sup>, 여기 부작용도 적지 않다. 유기(唯氣)는 형식보다 자연스러움을 좋아한다. 그야말로 마음놓고 칭찬하고, 마음놓고 받아들이는 것을 선호하는 것이다. 가령, 칭찬에 대해 적절한 회신은 쑥스러움이나 겸사보다 “고맙습니다, 칭찬해주시니……”라는 적절한 수용적 태세가 아닐까. 유기는 이런 억압 없는 열린 마음을 높은 가치로 생각한다. 이런 태도는 내면을 보여주는 문학이나 음악, 미술 등 ‘예술가’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덕목이다.

이 설명이 화답은 차치하고, 원교에게 어느 정도 해당될 수 있을까. 어긋나고 틈지는 부분은 어디인가.

① 그리고 원교의 양명학은 다른 사유, 이를테면 인물성동이론의 동론

40) 이황은 그를 “유가의 정맥이 아니다”라고 했다. 율곡, 『경연일기』, 『화답집』 v 권3, 22-23; 『율곡전서』).

41) 이 이념은 특히 『禮記』 「禮運」과 「樂記」에 잘 드러나 있다.

(同論)과 궤를 같이하고, 기질성의 선을 말하는 녹문 임성주의 그것과 논의를 같이하고 있다. 외암과 녹문과 원교 사이는 얼마나 멀고, 어디가 가까운가.

② 원교의 문장론은 연암에게서 들었던 것과 흡사하고(가령, 정민, 『비슷한 것은 가짜다』에 실린 연암의 문장론들 참조<sup>42)</sup>), 또 그보다 앞서 천진(天真), 진시(眞詩), 성정지진(性情之眞)에 입각한 농암 김창협이 낙론(洛論) 문학의 지향에 동조하고 있는 듯하다(가령, 강명관, 『공안파와 조선후기 한문학』 참조). 이 문제 또한 초보 문외한이 용훼(容喙)할 자리가 아니고, 숙수(熟手)로부터 들어 묻고 해야 할 곳이라, 단서만 짚어두고 후일을 기약한다.

---

42) 특히 「능양시집서」, 「공작관문고자서」, 「종묵소선자서」, 「영처고서」 등, 그리고 이들을 집약하고 있는 “贈左蘇山人”을 보라. “시정의 일반인들을 몰아 그들로 하여금 죽을힘을 다하게 하라”는 문장론은 연암의 “騷壇赤幟引”의 군사적 비유와 그대로 닮아 있다.

## 참 고 문 헌

四書, 『陽明集』, 『栗谷集』, 『花潭集』.

『信齋集』, 한국문집총간, 권252, 한국고전번역원.

『圓嶠集選』, 한국문집총간, 권221, 한국고전번역원.

『霞谷集』, 한국문집총간, 권160. 한국고전번역원.

강명관, 『공안파와 조선후기 한문학』. 소명출판, 2007.

심경호, 『강화학파의 문학과 사상(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5.

\_\_\_\_\_, 『신편 원교 이광사 문집』. 시간의 물레, 2005.

안대회, 「친구를 부르는 방」. 『고전의 향기』 코너. 한국고전번역원.

정민, 『비슷한 것은 가짜다』. 태학사, 2003.

정양완, 『강화학파의 문학과 사상(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5.

한형조, 「조선유학의 지형도」. 『왜 조선유학인가』, 문학동네, 2008.

## 국 문 요 약

이 글은 다음 몇 가지를 밝혔다. ① 강화학을 실학과 바로 연관시키는 통념을 반성하고, 아울러 강화학을 순전한 양명학으로 보는 통념도 점검했다. ② 강화학이 전반적으로 양명학의 장치를 취하고 있으나, 그 중추인 물들 가운데 특히 항재-신재가 주자학의 ‘이원론’ 위에 자신들의 학문과 공부를 입지시키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③ 원교 이광사의 “모든 사람의 기질성이 선하다”는 발상은 주자학을 넘어서고 있으며, 이것이 그의 예술론의 바탕이었음을 살펴보았다. ④ 그의 아들 신재는 객기(客氣)를 우려했다. 일상 속에 순화되지 않는 기의 움직임을 포착하고, 그것을 제거, 훈련시켜나가는 인위적 심학(心學)을 주창했다. 이것은 아버지의 길과 다른 정통적 주자학의 목소리이다. 논문은 아버지와 아들의 길이 갈라지는 지점을 살펴보았다. ⑤ 원교의 사유는 화담 서경덕의 유기(唯氣)론의 발상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는 것을 짚어보았다.

투고일 2011. 4. 5.

수정일 2011. 5. 2.

게재 확정일 2011. 5. 15.

**주제어(keyword)** 강화학(江華學, Gangwha School), 주자학(朱子學, Teachings of Zhu Xi), 양명학(陽明學, Yang-ming School), 실학(實學, Practical Learning), 기질성(氣質性, Innate Characters), 객기(客氣, Immature Characters), 심학(心學, Study of the Mind), 유기(唯氣, Chi-Naturalism)